

푸로벨과 그의 自然主義

梁 淳 瑛

— 차 례 —

- 一. 自然主義의 發端
- 二. 푸로벨의 生涯와 그 時代相
- 三. 「매담, 보파리」와 그의 文學思想
- 四. 自然主義와 푸로벨

一. 自然主義의 發端

近代的인 모든 文藝思潮中에서 가장 큰 발자취를 남긴 것은 自然主義이다.

이 自然主義思潮는 十九世紀 後半期에 걸쳐 佛蘭西를 發祥地로 하여 全 歐羅巴에 漫延되었던 것이다.

十九世紀는 自由를 爲한 對抗의 世紀였고 同時에 自由가 勝利를 얻은 解脫의 世紀였다.

十九世紀前半期에 있어서 文藝復興期 以後의 古典派의 形式主義文學에 反旗를 드높이 들고 極端의 自由精神을 欲求하는 所謂 浪漫主義運動이 일어났다. 이것은 「自然으로 돌아가라」는 루소오의 主唱에서 이루어진 自由를 根源으로 하여 出發한 思潮인 것이다.

루소오는 모든 因襲과 暴威에 사로잡힌 社會의 인비에 反對한

과 同時에 諸法則에 얽매이는 것을 嫌惡한 나머지 어쨌던 形式보다 表現을 爲主로 赤裸裸한 人間을 보려고 하였다. 이 뭇소오의 主張이 後日 佛蘭西大革命의 原動力이 되었음은 勿論, 近代文藝思潮에 커다란 變動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十九世紀後半기에 이르자 歐羅巴 全域에 걸쳐 奔放한 感情과 想像에 沒入하는 精神보다 科學的 精神이 橫溢하여 現實的 物質的 思想이 出現하여 近代的인 現實이 가지는 바 金權主義의 都市의 醜雜性을 次々 드러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大革命에 依한 精神的 激動과 共和政府에서 帝政時代의 싸움에 依한 物質的 大變動과 機械文明의 發展에 따라 新興한 少數의 資本家들은 漸々 金權을 잡는 方便 自己目的을 達成함에 따라서 人間本性的 醜雜性과 虛偽面을 發露했고 이의 反面에 一般大衆들의 生活은 窮乏의 一路를 걸게 되어 精神的인 高遠한 理想보다도 눈앞의 現實生活을 어떻게 營爲하느냐는 諸般問題 卽, 愛慾의 葛藤, 金錢을 싸고도는 家庭的 平和의 攪亂, 모든 欺瞞的 社會政策, 새로운 貨金制度의 契約 밑에서 大革命當時의 自由精神은 現實앞에 抑壓을 받거 奴隸化하는 人間群像을 보게 되었다.

앞에서 말한 機械文明의 發展은 오귀스트, 키틀가 主張한 「實証哲學」을 根源으로 體系化한 科學的 精神의 發達에서 왔다. 이러한 科學的 精神은 自然科學은 勿論이요, 精神科學과 文藝, 모든 方面에 浸透된 나머지 이곳 金權에 얽매인 人間の 悲哀面에도 스미어 들어 文學上에 있어서 現實의 悲哀를 科學的 製作法과 精緻綿密한 手法으로 描寫게 되었다. 여기에서 極度로 自然主義思潮은 散文文學의 主人公으로 發端게 되었다.

그러나 自然主義가 個人的인 感情을 排除하고 어디까지나 客觀的

眞實을 描寫함에 있어서 非個人性 非感動性이 根本精神이 되었는데 終末에는 『情熱이 비고 精神이 빠져 形式과 技巧만이 남은 無味乾조한 文學』이라는 理論下에 結局 八〇年頃부터는 이에 反動으로서 象徵主義文學이 일어나 同時的으로 直系와 傍系로 新人間主義, 虛無主義, 頽廢主義, 新神秘主義, 新心理主義, 等々の 文學形態가 일어나서 現代에 까지 이른 것이다.

이처럼, 自然主義의 發端은 高遠한 理想으로부터 極度の 現實에도 極度の 現實로부터 極端의 不安에 까지 影響을 미쳤던 것이다.

二. 푸로벨의 生涯와 그 時代相

푸로벨은 『赤과 黑』의 作家인 스탕다아르의 初期 作品인 『伊太利繪畫史』와 『로마, 나폴리, 포르텐스』 등이 發表되고 또한 희랍이 土耳其의 壓迫에 獨立의 叛旗를 든 一八二一年에 『두앙』市에서 낳다.

그는 少年時節부터 빅틀, 유-고의 絶대적인 崇拜者이었다. 그의 少年時節은 浪漫主義의 꽃이 활짝핀 時節이었으므로 이에 일찍이 影響을 받은 그는 十歲 前後에 벌써 多數의 戲曲 脚本을 썼고 여러 벗들을 모이여 劇 놀이를 했다고한다. 特히 劇 놀이 중에 後日 푸로벨의 文學思想을 繼承한 모팻쌍의 어머니되는 로오라 女史도 끼였었다고 한다. 이와같은 斷片的인 事實도만 미루어 보더라도 그는 文學上에 있어서 未熟이었음을 알게된다. 그러나 學校 成績은 그다지 좋은것이 아니었고 더욱이 數學은 제-모로 그의 低能을 疑心할 程度였다고 한다.

그는 佛蘭西의 浪漫派의 巨匠들의 全盛期에 少年時代를 지나서 자기의 意識으로만 觀照에 立脚하면서 또 죽을 때까지 빅틀 유-고만

을 숭拜 하였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內省的으로 浪漫的 精神을 갖추었으면서도 그가 發表한 作品의 描寫가 한때 風俗上 問題가 되어 法廷에 끌리어 가서 世上의 道德家들에게 끊임 없는 비난 공격을 받았다.

그후 그는 다음과 같은 懷疑를 남기고 憂愁 때문에 六十歲(一八八〇)로 世上을 떠났다. 『나는 美 하나 때문에 神, 人生, 人道 따위 信앙을 破壞했다. 그러나 그 美가 또한 이 世上의 다른 모든 것과 같이 幻想으로 사라져 버리고 아무 信賴할 것이 못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옳단말이나! 藝術을 위하여 青春도 幸福도 사랑까지도 버리고 만 것이다. 그런데도 藝術이 나를 무덤앞에서 背叛하여 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이나!』

이 懷疑는 그에게 있어서 너무도 뼈아픈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가 죽은후의 葬儀式에는 少年時節에 劇놀이를 하던 不過 五六人の 몇몇만이 모여 일을 지르었다고 한다. 이와같이 그는 文藝思潮上의 作家中 가장 悲慘한 죽음을 했다. 이렇게 그는 浪漫主義 氣風만이 넘실거리는 時代에 處하면서 은근히 스며드는 科學的 精神에 依하여 自然主義의 先驅的 地位에 섰다.

그렇게 보면, 유고의 낭만精神을 승尙한 그가 어찌서 그와 正反對的인 自然主義의 開祖가 되었는가?

위선 그의 全生涯를 通한 仔細한 時代相을 알기전 近代의 時代(一七八九—一九〇〇)를 概觀하여 볼 必要가 있다. 여기서 筆者는 다음과 같이 近代의 時代를 四期로 나누어 概觀하여 한다.

第一期(一七八九—一八一五)에서 佛蘭西大革命의 精神的激動에서 나프레옹이 일어나 自由主義精神의 新思潮는 한때 歐羅巴를 風靡하였고 第二期(一八一五—一八四五)에 들어서 反動政治가 일어나 自由

主義가 抑壓을 받게 되었고 第三期(一八四五—一八七〇)에서 自由主義의 勝利로 國民統一의 問題에도 解決을 보았고 第四期(一八七〇—一九〇〇)에 와서 列強이 제마다 帝國主義를 採用하여 自國의 富強은 다투어 世界政策의 流行을 보게 이르렀다.

이렇게 近代의 時代를 概觀해서 보면 近代란, 自由를 위한 對抗의 世紀였고 同時에 自由가 勝利를 얻은 解脫의 世紀였음을 알겠다.

여기서 또한 우리는 푸로벨의 生涯가 되는 期間이란 第二期(一七八九—一八一五)에서 第三期(一八四五—一八七〇)를 거쳐 第四期(一八七〇—一九〇〇)의 初葉까지 임을 알게 됨과 同時에 그가 받은 時代的 影響도 험사리 알 수 있겠다.

좀더 具體的으로 그의 生涯를 通한 時代相을 考察해 보면 政治的으로 그가 世上에 남기前인 六年前(一八一五)에 大革命의 龍兒인 나포레옹의 百日天下가 있었고 언달아 우인會議(同年)에서 나포레옹의 極盛時에 獲得한 各國의 領土 分合과 露西亞 아메가살—원의 主張으로된 神聖同盟(同年)이 있었다. 또한 그가 世上에 남은 해(一八二一)에 西南歐의 革命運動과 希臘의 獨立運動이 일어났다. 그가 두살 되는 해(一八二二)에 南米諸國의 獨立運動이 일어났고 十歲되는 해(一八三〇)에 七月革命이 일어났고 二九歲되는 해(一八四九)에 二月革命이 일어났다. 그가 三二歲되는 해(一八五二)에 와서 나포레옹三世가 쿠데타를 斷行하여 實施한 第二帝政을 보게 되었다. 그의 老年期인 五〇歲되는 해(一八七〇)에 普佛戰爭이 일어났다. 이와 같이 그의 全生涯에 걸쳐 그에게 준 時代的 影響이란 自由뿐이었다. 經濟的으로는 나포레옹三世가 第二帝政을 實施한 後에 나포레옹一世當時의 經濟封鎖인 保護關稅主義를 放擲함과 同時에 自由貿易에 立脚해서 外國과의 貿易은 盛行되었다.

이렇게 政治的인 면에서 勝利를 거둔 自由는 經濟的인 면에서도 勝利를 거두었다. 그러자 이제껏 열겁 스무겁 묵여졌던 資本主義는 急速히 눈뜨기 始作하였오며 이에 並進해서 資本主義의 發展上 不可不 科學의 協力을 要求했다. 一八五六年에서 一八六二年까지의 短 期間에 프리를 물고 나타나는 科學의 新說中에서 켄트겐(獨)(一八四五...九五)의 『X, 線』 슈-리夫妻(佛)의 『라지움』 헤름홀츠(獨)(一八二一...九四)의 『勢力不滅說』等等은 完全히 사람의 思考方式과 感覺의 測度까지를 變革하고 말았다.

특히 푸르벨은 科學의 精神의 影響을 크게 입었다. 오쿠스트, 켄트의 『實証哲學』과 칼스, 다윈의 『進北論』의 影響과 家庭의으로 父親의 遺傳인 科學의 精神은 빅롤, 유-고의 崇拜者인 그로하여금 正反對的인 地位에 서게 됐다.

앞에서 말한 政治的 經濟的인 면에서 勝利를 거둔 自由는 資本家로 하여금 自己目的達成의 手段方法으로 自然科學의 發達을 보그 이 自然科學의 發達은 모든 人間의 思考方式을 分析과 解剖와 實驗, 觀察을 통한 機械的 思考法으로 變革하고 말았다. 또한 自然科學의 發達은 物質文明, 機械文明의 눈부신 世界를 이룬 것이다. 이 世界에서 人間은 極端의 利己主義에 타락하고 말았다. 말하자면 資本家들이 漸漸 金權을 잡는 以便 自己 目的을 達成함에 따라서 人間本性인 醜雜性과 虛偽面을 次次 드러나게 되어 反面에 一般大衆들의 生活은 餘地없이 窮乏한 一路에서 허덕이었고 奔放한 感情보다 冷靜한 客觀眼으로 現實問題를 보게 이르렀다.

더욱이 普佛戰爭의 敗戰은 佛蘭西人의 人間精神을 極度로 沈滯케 만들고 現實의 悲哀를 一切 主觀의 妄想을 버리고 科學的 精緻綿密하게 人生을 批判 分析하여 人生의 真相을 暴露하는 風潮를 이도

졌다.

푸르벨은 이런 時代的 傾向을 代表하여 嚴正한 藝術을 찾아서 琢磨된 筆法으로 文藝를 創作한 것이다.

三. 『매담. 보바리』와 그의 文學思想

『매담 보바리』는 地方의 『푸르조아』一群의 生活을 風俗 描寫로서 簡單한 筆致속에 豐潤한 影像을 描寫해서 緻密한 觀察로 現實感을 갖게 하는 作品이다.

全篇을 通하여 統一과 完璧을 갖으면서도 纖細한 筆法으로 차근 차근 그려진 大傑作이고 自然主義가 낳은 最初의 代表作임과 同時에 近代小說의 典型으로 佛蘭西文學史上에서 뿐만 아니라 世界文學史上 큰 에포크를 그려놓은 것이다.

그런故로 이 作品이 많은 後進들의 作風에 영향을 끼쳤음은 두말 할 것도 없다. 그가 描寫하는 人間相은 人間相互間의 心靈이 通하지 않는 無意味 無條理한 生態이고 作品속의 命脈은 어디까지나 甕기가 들지 않는 寒冷의 宇宙이 었다.

그러면 푸르벨의 文學思想을 考察하기爲해서 思想의 核心이 되어 주는 그의 性格을 우선 알아 보기로 한다.

그는 二重性格의 所有者이다. 그가 全生涯를 通해서 빅틀·유-고의 崇拜者였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一面은 낭漫的인 氣質을 갖추었다는 것을 알겠다. 또한 他面으로는 그의 父親이 주알市立病院의 外科部長이였기로 職業的 醫師의 冷酷한 科學的 精神을 遺傳받았다고 보아 自然派的인 氣質도 갖추었다고 하겠다.

이 二重性格을 感傷的 理智的인 性格에 傳來한 것으로 보는 評

참가 있는 反面에 그가 作家로서 登場한 當時文壇 主流가 文藝思潮의 轉換期였다고 보아 時代性에 傳來했다고 보는 評者도 있다. 에밀·피게도 「푸르벨은 作家으로써 二重性格을 지니고 있다. 생드와 같이 낭만派에서 다른 것으로 移籍한 것도 아니요. 발작크와 같이 낭漫主義와 다른 것과의 混合物을 만들었던 것도 아니다. 그의 創作態度는 어느때는 純然한 낭만派요, 어느때는 純然한 寫實派이다.」라고 評한바있다. 푸르벨은 마치 우리 新文學史上의 羅稻香氏와 같은 二重性格의 所有者였던가 본다. 그러나 그가 特히 自然派의 性格을 지니게 된 原因은 앞에서 暫間 말했지만 父親의 性格을 遺傳받은 以外, 同時的으로 오귀스트, 칸트의 「實証哲學」과 할스·다윈의 「進化論」에 影響을 받았다. 그의 性格이 科學的 精神의 影響을 받았다는 點에서 이 科學的 精神이 바로 그의 文學思想이 된 것이다. 故로 그의 創作態度는 決定的으로 現實生活의 傍觀的 地位에 섰던 것을 알게 된다.

그가 「에담, 보바리」를 創作한 態度는 個人意識과 時代意識을 超越한 無自覺的 態度이다. 그 理由로써는 그는 가장 「近代」나 「近代題材」를 싫어했다는 點이 있다. 「近代나 近代的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만일 그렇게 말할수 있다면 발작크보다 오멜 (오오마이)쪽이 더 近代的이다.」라고 말한 그의 無自覺的인 態度와 言說은 놀라울게 有名한 厭人主義的인 유모-이이고 피로독스이다. 이것으로 그가 文藝上의 新思潮인 自然主義를 일부터 「近代的」이고 科學的이라고 말해서 世상에 퍼뜨리지 않았던 것만은 事實임을 알수 있다. 에밀·조라도 「잠으로 훌륭한 天才는 自己의 處해 있는 時代나 自己의 作品의 價値와 그 作品이 어떠한 革命的 使命을 띄고 있는 지도 全然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런點에서

筆者는 그의 文學思想을 다음과 같이 規定지워 보았다. 『科學的精神에 立脚한 無自覺的인 態度。』라고.....

그러면 그가 언제부터 『예담, 보바리』를 創作하기 始作했는가? 二月革命의 해, 一八四八年에 유우마 외우스의 作 『椿姬』가 發表되고 脚色까지 보게된 『椿姬』가 上演禁止를 當하여 여러가지 말재미 있는 後 다시 脚光을 비칠수 있게된 一八五二年! 나폴레옹三世가 쿠데타를 斷行하여 憲法을 改定하고 第二帝政을 實施한 해! 이때부터 創作하기 始作하여 四年의 歲月을 걸쳐서 脫稿를 보고 辛苦의 結晶이 『巴里評論』에 發表된 것이 푸르벨의 『예담, 보바리』(一八五六)이다. 四年간이만 한마디로 말하면 大端치 않으나 作品의 量과 比較해 生覺할때 그의 苦心의 자취가 역역히 엿 보인다. 아마 平均 每月三十枚도 못 썼을 것이겠다. 興에 못이겨 붓을 말린다면 誠實을 죽이게 됨으로 感興의 有無를 不問하고 꾸준히 創作을 繼續했으리라. 이것은 그가 精緻綿密한 科學的 精神에 立脚한 眞實한 態度이다. 그의 作品上에 나타난 科學的 精神 卽, 文學思想을 分析해 보면, (一), 主觀을 버렸고 先入觀을 排擊하여 結論이없고, (二), 어떠한 한 가지라도 소漏히 보지않고 모든 事實을 蒐集하여 이 모든 事實위에 하나 하나의 重要性을 제각기 부여, (三), 深度가 있게 普遍性을 發揮한 것 등々이다. 그는 以上の 科學的 精神을 實踐해서 自然主義文學을 樹立해 놓았다.

또한 愛弟子 모팻생에게 「이 世上에는 全然同一한 모퉁이는 물론 없다. 全然同一한 두마리의 파리, 두개의 손, 두개의 코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한바 있는데, 이것이 『예담, 보바리』를 創作한 그의 態度이기도 했다. 그가 自己 父母 親族과 벗들을 모덴모잠이 技巧의으로 存在한 그대로를 그저 粒々의 苦心을 하나 둘 쌓

이 完成한 이 作品속에 使用한 言語란 크리키가 말한 「正確한 言語 注意깊이 選擇한 言語.」 그대로이다. 이것은 科學的 精神에 立脚한 技巧的인 描寫를 보여 준다.

이 「예담, 보바리」의 梗概를 말한다면 女主人公 엠마는 元來, 素朴한 農夫의 딸로 태어났고 어려서 教會에서 浪漫的인 教育을 받았다. 엠마는 神父에게 聖者와 中世騎士의 美談을 즐겁게 들었고 平素부터 「폴과 비르지니」 「스콧의 歷史小說」 등을 耽讀하여 사랑은 가장 神聖하고 幸福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롭다운 理想을 품었다.

이처럼 感傷主義的인 생각을 품었던 엠마는 洞內의 醫師 보바리와 結婚하게 된다. 結婚後 엠마는 家庭生活의 無味乾燥와 男便이 너무도 平凡한데에 倦怠를 느끼기 始作하여 지난날에 품었던 浪漫的인 思想은 한 갓 의도움에 사로잡히고만다. 얼마 後에 뎁옹이라는 好色의 紳士와 不義의 快樂을 耽한 남이 지 돈을 얻어쓰고 차츰 墮落한다. 男便을 通하여 名譽와 權利를 手中에 넣으려고 하였지만 萬事가 如意치 못하여 內중에는 飲毒 自殺을 하느미서 끝인 다.」

여기에서 그는 不幸한 엠마에게 한방울의 눈물도 던져주지 않았던 反面에 오직 理智的 技巧의으로 冷酷하게 描寫했다.

그는 事件의 圈外에서 冷然히 事件을 反映하는 거울이 되고 近代의 悲哀를 보여 주었다. 이에 女主人公 엠마는 幻想消滅의 悲哀와 絕望의 悲哀에 허덕이었다. 그러면 이와같은 悲哀는 어째서 일어났는가? 第一 (一), 佛蘭西大革命以後 歐羅巴人은 政治運動에 힘을 다하여 眞實한 自由를 求하려 했지만 바라던 理想은 全히 實現되지 않았던 點. (二), 神聖한 것으로 解釋했던 알뜰한 男女關係가 醜雜한 事實으로써 認識된 點. (三), 宗教的 說教의 虛偽性은

認識케 된 點。 (四), 機械的人生觀 卽, 自由意志를 否認하고 人間으로 하여금, 모든 경우에 周圍의 必然的 產物이 됨을 認識한 點 等이 原因으로 이 悲哀는 自然主義文學의 特性이 되어 버렸다。

그가 쟁드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全滅과 苦痛의 느낌이 나를 억눌르고 죽임과 같이 슬픔을 생각해 한다. 舊信仰을 重히 여기는 것은 只今 不可能한 것이다. 아울러 新信仰을 내세운다는 것도 또한 어렵다. 나에게서는 무릇 基本的인 한계의 思想을 求 할 수도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近代의 天才인 푸로벨만 가졌던 悲哀이었던가? 悲哀는 近代末期란 特殊한 時代的 所産이겠다. 다음에 引用한 한 句節의 代目은 엠마의 悲哀를 切實히 보여주었다. 「결혼하기 전 그 여자는 스스로 결혼 후에 지닐 수 있으리라는 알뜰한 戀情(戀情)을 밀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난 후에도 밀었던 행복은 끝끝내 돌아오질 않았다. 엠마는 이것은 자기의 잘못 생각하였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행복, 애정, 도취(陶醉), 지난날 서적(書籍)에서 읽었을 때는 꼭 아름답게 생각되어진 말이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意義(意義)를 내포하고 있었는지 이제서야 엠마는 그것을 발견하려고 애썼다…….」

이 한 句節의 代目에서 가장 잘 自然主義精神을 代表的으로 모셔진 것을 볼 수 있다. 엠마는 무엇을 發見하려고 애썼는지? 이것은 엠마의 果敢한 反抗의 歷史를 보여줌이겠다. 當時 社會에서 새로운 엠마의 反抗을 「엠마이즘」으로 代稱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이즘』으로 불리어 왔다.

엠마는 『春姬』와 『카츄사』와 全然 다른 別個의 意味를 가지고 人間의 愛情과 理智위에서 날카로운 反抗을 보여주었다. 『春姬』와 『카츄사』는 家庭을 이룰 수 없고 幸福을 가질 수 없는 不遇의 環境

속에서 잦은 모욕과蔑視를 당한 女性들이지만 엘마는 家庭을 가졌던 『안나카메너』와 같은 다만 平凡한 사내를 男便으로 섬겨 結婚生活을 支續해왔던 女性이 人間的 苦悶과 悲哀위에서 反抗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이 反抗은 낭만의인 殘재가 아닐까? 엘마의 낭만의인 殘재는 빅틀 유-고의 崇拜者인 그의 낭만의氣質이기도 하다. 낭漫主義者는 이 反抗에 스스로 感激했고 自然主義는 이 反抗에 스스로 反抗이라는 文字를 잊어버렸다. 그 中間에 서서 그는 反抗을 解剖하려고 무척 애를 썼다. 反抗을 解剖한다는 것은 現實의 悲哀, 있는 그대로를 暴露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는 十七才때 벌써 文學同人들에게

『나는 恒常 解剖한다. 他人의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그 實은 腐敗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 모든 것이 根本은 虛榮이 숨겨 있는 萌芽에 지나지 않는 다.』라고 말했다.

解剖한다는 그 自体가 機械的 物質的 人生觀에 觀點을 두고 一切 萬有를 精神的인 것으로 보지 않고 物質的 盲動으로 본다. 이런 見地에서 人間生活은 動物的生活이며 또 盲目的인 本能的 性慾의 生活外는 없다. 다시 말하면 낭漫主義時代에서는 靈的인 形而上學的인 것으로 생각된 人間이, 物理化學의 法則에서 支配받는 自然人으로 생각함에 이른 것이다. 그는 이런 科學的 精神에 立脚해서 人間像을 보았고 女主人公엘마의 心理狀態와 行動을 肉慾的 即 獸性的으로 描寫해 놓았다. 엘마가 幻想消滅의 悲哀에 잠겨 情夫한다는 것부터가 肉慾生活이고 人間本性이었다.

그의 作品 內容이 너무도 獸性的이라는에서 메메지코프스키 (一八六五—一九四一)는 『푸르벤은 심장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斷罪를 내며 또한 푸르벤論에서 『藝術家는 그 自身을 人生이라는 곳에서 脫

出해 가지고 不動하는 觀察者의 경우에서 作品의 材料가 될 것이 眼界로 지나갈 것을 기다리고 있는 翫판을 갖게 되는 것인가 한다. 이리하여 그의 想像力과 觀察力이 增加되는데 比例해서 모든 道德的인 活動에 不可能할 感情과 意志는 漸次로 減退되어 가는 것이라 볼수 있다. 푸르벨의 審美的인 特質은 다시말하면 藝術的 態度는 倫理的本能을 蠶食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文學家의 生活을하기 위하여 血氣旺盛한 壯年期로 부터 文學에 충실하며하여 거친들의 禁慾主義者처럼 洞窟속의 隱者와 같이 現代의 一切의 享樂을 버리고 죽을 때까지 徹底한 現實生活의 傍觀者였고 冷靜한 觀察의 態度를 놓지 아니했다. 實踐的인 倫理의 人格과 觀照的인 人格사이에는 상당한 거리의 間격이 있는 것인데 實踐을 떠나서 가만히 傍觀하여 觀照한다는 것 自己의 苦痛까지도 客觀的으로 傍觀하고 맛보면서 엄숙한 觀察態度를 維持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苦痛과 忍耐力을 必要로 하는 것이다. 그는 어떠한지나 「科學의 精神에 立脚한 無自覺的態度」를 作品上에 發揮한 點에서 文學의 人格의 最高水準에 서있다고 볼수있다.

그 自身도 메테지코프스키가 斷罪내린 그대로 立場을 가지지 않는 것이 藝術家라 믿었고 엄숙한 傍觀的 觀察態度로 道德도, 理想도 感激도 宗教도 모조리 否定해 버렸다. 이리하여 生의 方向을 藝術上에 眞實에서 求했던 것이다. 人生의 모든 價値를 捉잡고 나서 藝術의 眞實이 뛰덩이가 된 優勝旗를 내세우려했다.

「매담, 보봐리」의 發表以來 科學의 精神과 方法을 文學에 注入시키려는 새로운 思潮의 氣運이 높아져서 日曜日날 午後에는 르오댕 조라 모팻상 메느 콩크르트兄弟 그리고 露西亞의 쥬르제베르 등이 그의 周圍에 모여 앉아 文學論을 討論하였다.

이와같이 自然主義는 徐徐히 發足하였던 것이다.

四. 自然主義와 푸로벨

이제껏 말한바와 같이 自然主義는 科學의 精進의 影響을 받은 푸로벨의 個人意識과 時代意識을 超越한 無自覺的 態度아래서 特히 近代末期란 特殊한 時代를 背景삼아 發足했던 것이다.

自然主義文學이란 어디까지나 科學의 精進에 立脚한 文學이니 만
 큼 讀者도 하여금 그가 가지고 있고 가질 수 있는 一切의 幻想
 을 餘地없이 沒却하고서 自身이 悲慘하고 웃음광 스러운 存在임을
 意識케 했다. 푸로벨도 作品上에 人間性 一般이 悲慘하고 허탈 것
 없는 것임을 생각케 하고 現實의 悲哀를 科學的 精緻綿密하게 그
 래로 그림으로써 그 속에서 眞을 찾아 내어 人生의 日常生活의 醜
 雜性和 虛僞面等을 暴露했다. 어쨌던 自然主義思潮는 一種 世界思
 潮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諸國家의 文壇에 文藝思潮가 일어나 衰
 退하고 있으나 自然主義에 匹敵할 만한 것은 없다. 아마 가까운
 將來에 있어서도 그만한 文藝思潮를 볼수 없을 것이리라 본다.

그러나 果然 오늘날 우리나라의 環境에서 볼때 自然主義를 벌써
 古色이 蒼然한 것으로 본 나머지 自然主義가 막다른 골목에 서면 殺
 人 放火 發狂 屍姦 亂淫 쟁탈의 世界를 醜하게 그려내고 作品 自
 休는 深刻味도 沈痛性도 갖지 못한채 앙상한 뼈가 다귀만을 보여
 주고서는 惡魔的 犯罪的行動에서 藝術的 衝擊을 받아 機械的 物質
 的 動物의 人生觀이 美와 生命의 究竟을 찾으려는 耽美主義의 世界
 만을 그려냈다는等 評擊의 화살을 연거퍼 쏘아온다.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서 耽美主義의 世界를 그려냈다는 論駁을 받는 것은 東洋人

이란 理由以外에 이것의 輸入이 半世紀 뒤떨어졌던 時間的 距離에서 이것의 뒤를 이어 輻輳하게 된 다른 思潮와의 混雜에 基因한 바에 있겠다.

그렇건만 近代散文文學이 가지는 모든 現實的인 特質, 個人主義 寫實主義 唯物的, 功利的 性慾的 社會적 心理적 理智적 官能적인 態度等은 모두 이 自然主義文學觀에서 派生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機械적 物質적 動物적 生活을 營爲하는 人生의 日常生活의 醜雜性과 虛僞面을 暴露시키고 現實에 對한 悲哀를 冷徹하게 科學적 精神에 立脚해서 描寫해 내는 自然主義가 包含하고 있는 여러가지의 特徵이 近代人의 生理에 合理되었다고 볼수 밖에없다. 아울러 科學的 精神이 푸르벨의 生理에도 合理되어 그로하여금 時代精神의 反映을 爲主로 他人에 對한 無同情主義 事實의 真相을 알며 어디까지나 冷靜히 對象을 實驗觀察하는 科學的 態度로 自然主義를 先驅的 役割을 다하게 했다.

그의 作品에는 「매담 보바리」以外에 『聖안토와의 誘惑』 (一八四九—一八五六), 『씨암보』 (一八六二), 『부바두와 페기시유』 (死後版) 의 長篇과 『세가지의 이야기』 (一八七七)의 短篇集 此外 戯曲數篇 등이 있는데 어느것을 막론하고 科學的 精神에 立脚하지 않은 것이없다.

오늘날 自然主義作品을 읽어 볼때 그先驅的 役割을 다한 푸르벨을 生覺지 않을 수 없을 뿐더러 푸르벨을 生覺할 때 그의 作品인 『매담 보바리』를 聯想케 된다. 이처럼 科學的 經濟的인 圖에서 勝利를 거둔 自由는 資本主義를 낳고 資本主義는 그의 並進으로 自然科學의 發達을 보아 이 自然科學의 發達은 極度로 個人主義와 利己主義에 人生의 悲哀를 演出했으며 이런 時代的 影響을 입은 푸르벨은 「매담 보바리」를 通해서 人生의 (138 페이지에 계속)

彙 報

結 成 • 總 會

※4288. 7. 13 科長任을 비롯해서 여
미先生任을 모시고 國文學科生全
員의 歡喜裡에 會則通過 任員選
舉로서 本學會의 結成을 보았다.

顧問

學 長	吉 聖 暹
科 長	玄 平 孝
教 授	張 卞 根

任 員

會 長	玄 容 玄	
副 會 長	金 薰 洽	
總務部長	康 泰 淳	
〃 次長	邊 榮 卓	
出版部長	李 炳 致	
〃 次長	李 致 根	
研究部長	金 赫 教	
〃 次長	趙 明 哲	
國語學班長		寶
〃 副班長	高 泰 淑	淑
國文學班長	康 英 率	壽
〃 副班長	金 奉 南	坤
創作班長	白 梁 才	浩
〃 副班長	梁 金 澤	度
民俗學班長	金 梁 淳	貞
〃 副班長		

※4289. 5. 2第一次定期總會를 開催

코 다음과 같이 任員을 改選했
다.

顧問	朴 鐘 萬
科長	玄 平 孝
教授	張 卞 根
教授	金 永 三

任 員

會 長	玄 容 玄
副 會 長	趙 明 致
總務部長	李 邊 榮
〃 次長	梁 才 浩
出版部長	梁 高 英
〃 次長	康 李 鳳
研究部長	李 高 泰
〃 次長	梁 高 淳
國語學班長	高 玄 正
〃 副班長	梁 白 潤
國文學班長	高 玄 南
〃 副班長	白 金 秉
創作班長	白 金 權
〃 副班長	高 富 康

新 入 會 員

※4289. 4. 1 新入會員 47名을 맞이
했다.

歡 迎 會

※4288. 11. 26. 詩人 朴木月先生任의 就任에 本學會에서는 여러指導先生任을 모시고 本大學第三講義室에서 素朴하면서도 뜻깊은 歡迎會를 가졌다.

※4289. 5. 6. 잔디푸르머가는 沙羅峯에서 新入會員을 맞이하는 歡迎會를 가졌다.

研究資料蒐集

※4289. 2. 7. 全道中高校 同學先輩들에게 民俗資料 蒐集을 依頼했다.

※4289. 3. 20. 全會員 放學을 利用코 方言및 民俗資料를 蒐集했다.

※4289. 7. 12. 二學年 全會員 民俗資料 蒐集에 臨했다.

記 念 行 事

※4288. 10. 9. 509回 한글날 記念行事로서 詩 朗讀會를 開催했다.

日時 4289. 10. 9. 下午 7時

場所 晨星女高講堂

參加者 中, 高, 大學生

※4289. 10. 9. 510回 한글날 記念行事로서 文學 오딧피야(白日場)을 開催했다.

下午 1時, 初, 中, 高校生 100余

名이 參席한 가운데 매우 盛況을 이루었고, 詩部 散文部의, 入選者 十五名에게는 賞狀및 副賞을 授與했다.

研究發表會

本學會에서는 定期 月例會로서 다음과 같은學術研究發表會가있었다.

※一回, 4288. 10. 9. (509回 한글날 記念行事를 兼해서) 大講堂에서

「耽羅」語意考……科長 玄平孝 誤樂의研究……教授 張壽棧

※二回, 4288. 10. 29. 第一講義室서 濟州方言에서의 「ㅇ」考…三條 玄容준

歌辭文學과 李朝의 社會性…二年 康英淑

※三回, 4280. 11. 26. 第四 講義室서 迎東研究論考……二年 金澤廈

創作「苦笑」外 詩 5篇……創作班

※四回, 4289. 5. 28. 第十一講義室서 濟州方言語尾活用의 序說의 試考……四年 金榮敦

※五回, 4289. 7. 3. 第十二 講義室에서

西浦金萬重과 그의 文學……二年 玄商鐘

※六回, 4289. 7. 13. 第十三 講義室에서

詩7篇. 小說一篇 隨筆3篇……創作班

編輯後記

※남들은 學期末試驗을 지르노라고 야만인비, 校正이 어떻고, 活字가 어떻고, 題字를 어떻게하고 等々, 편집을 보고 있는게 아무때도 못저다. 허나, 本學會의 誕生一年만에 그의 樣姿며, 質이며, 生活 모습들이 한배 뭉쳐, 이제 世上에 뛰쳐 나가려는 아무런 소리를 들을때 오히려 마악 신이 난다.

※胎期 二十個月만에 그처럼 훌륭한 名將軍 金유信을 낳다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陣痛을 한 오늘의 結果가 龍이 되었는지 미꾸라지가 되었는지 編輯子로서는 도저히 모르겠다. 제 子息 미워하는 父母가 없듯 그저 사랑스럽고 쓰다듬어 주고픈 귀여움과 喜悅뿐이다.

※그렇다고 이것으로 滿足해 하는건 아니다. 이뤄를 이어 많은 弟妹들이 나올 것임에 이번 經驗을 通해서 보다 낫은 完成品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또한 宜當 그렇게 되어야 할것임에 두어개가 무거워짐을 느낀다.

※되도록이면 完全을 期하며 무척 애졌으나 編輯을 처음으로 經驗하는 터이라 워낙 未熟해서 모처럼 投稿해주신 玉稿들에 흠입힌바 없지않아 先生任이며 諸學兄들에게 未安한 말씀을 드려야겠다.

※워낙 어려운 漢字부성자와 없는 古語活字들이 많아 工場內에 一大混亂을 이트킨비對한 未安한 마음과, 그때로 精誠드려 이란한 完成品을 이루게 해준비 對해서 謝意를 表해야겠다.

※양지바른 讀友에 얹아 「國文學報」를 퍼들고 담배를 피워준다. 퍼져오르는걸기 따라 하늘을 쳐다본다. 명년 하늘이 이만큼 높을때면 꼭 將軍갑 아들(冊子)을 낳으리라..... 。하늘에 꿈을 색인다. (Y)

4289年10月5日印刷
4289年10月9日發行

國文學報

第一輯  【非賣品】

發行人 濟州大學濟語國文學會

編輯人 濟大國語國文學會出版部

印刷處 濟州市一徒洞416

濟州印刷工業社

電話 14番

우리의 맹세

1.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를 받
축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2.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자를 쳐부시자
3.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통일을
완수하자